

‘평민열전’

허경진 편역
웅진북스 / 1만 5천원

조선시대는 신분체제를 양반·중인·상인·천민의 네 계층으로 나눈다. 이들을 다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묶어본다면 양반 사대부와 평민으로 나눌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반 사대부들은 달아나기에 바빴고, 반대로 평민들은 의병을 일으켜서 제 고향을 지켰다. 집권층의 무능력과 허세가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눌러 지내던 평민들의 세력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평민들의 삶을 실감나게 그려낸 김홍도작 '점심'(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25폭 중).

문화와 함께 읽는 평민 110인의 열전

양반들만 사회의 주체이던 시대가 지나고, 평민들도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입신출세를 위해 시를 짓던 양반들과 달리 평민 시인들이 자기네 삶을 한문학의 형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남다르게 살았던 평민들의 삶을 전(傳)의 형식으로 서술해 남기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이로써 평민 전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화와 인간 탐구가 함께 있는 새로운 역사읽기. 최근 나온 <평민열전>은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선인들의 개인사 속에서 삶의 활화를 건져 올린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에는 풍속화의 대가 김홍도, 달마도로 유명한 김명국, 대동여지도의 김정호, 명기 황진이와 칼 만드

는 장인 신아 등 시인, 화가, 서예, 의원, 역관, 의협, 처사·선비, 바둑, 총렬, 장인, 효자, 효녀, 절부·열녀, 기생·궁녀 등으로 분류한 평민 110

체 역사서 속에는 인간과 시대에 대한 치열한 탐구가 담겨져 있다. 행장이나 연보, 묘비명까지 있는데도 굳이 전을 다시 짓는 까닭은 사실의 기

화가·의원·선비·기생·장인·역관 등

조선후기 ‘비범한 평민’들의 남다른 삶

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짧은 지면 안에서 그 인물의 남다른 삶을 최대한 부각시킨 ‘열전(列傳)’이라는 형식은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매력적이다. 한 인간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전해야 할 사건만 간결한 문체로 기록한 기전

록이면서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이나 인간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조선시대 평민 한문학을 연구해 온 연세대 국문과 허경진 교수가 펴냈다. 평민 출신의 화가 조희룡이 1844년에 지은 평민

전기집 <호산외기>, 아전 출신의 유재건이 1862년에 엮은 <이항경문록>, 그들의 친구였던 시인 이경민이 1866년에 엮은 <회조실사> 등 세권의 전기집을 중심으로 엮었다. 조희룡과 유재건, 이경민 등은 자신들의 안목과 기준에 의해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을 짓거나 인용했으나, 사실적인 기록에 가까운 글들이다. <호산외기>는 요즘의 역사계에서도 하나의 역사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가치가 높다.

이 책은 사건 중심의 기존 역사서들과 달리 비범했던 19세기 평민들의 삶을 통해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본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영혼의 식탁 1·2’

책 캠페인 외 지음
휴머니스트 / 각권 9천원

최고의 권위와 솜씨를 자랑하는 요리사들이 손꼽는 최상의 재료는 사랑이다. 제 아무리 근사한 음식이라도 사랑이 담기지 않고서는 제 맛을 내지 못한다. 사랑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공기와 같은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무엇이다.

<영혼의 식탁 1·2>은 사랑을 나누어 기쁨을 만들고, 절망을 바꾸어 용기를 전하고, 시련을 이기어 행복을 키우며, 꿈과 희망을 이루게 하는 가장 훌륭한 식탁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 한다. 그리고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이 뜻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장

행복한 삶 위한 사랑나누기

잠시 쉬어가게 하는 감동적 내용 담아



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고르며 자신들의 아빠에게 묻는다. 여자아이는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무엇이라든지 살 수 있다. 여자아이는 예쁜 바비 인형을 골랐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그렇지 못하다. 포켓몬 게임기를 사고 싶지만, 남자아이가 게임기를 골라 아빠를 쳐다볼 때마다, 아이의 아빠는 고개를 내저었다. 풀이 죽은 남자아이는 게임기를 포기하고 스티커 책자를 골라 계산대로 향했다.

이를 지켜보던 여자아이가 바비 인형을 다시 진열대에 가져다 놓고, 포켓몬 게임기를 들고와 계산대를 치른 뒤 점원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뒤이어 남자아이가 스티커 책자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바로 그때, “축하합니다. 오늘님의 백번재 손님이군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원이 남자아이에게 포켓몬 게임기를 내밀었다. 남자아이는 못 믿겠다는 듯이 괜히 쳐다보면서, 꼭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여자아이는 아빠와 출입구 근처에서 있었다. 여자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묻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사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책에 나오는 ‘행복을 만드는 아이’의 주요내용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여자아이는 남자아이가 바라던 것을 선물로 주고, 행복을 샀다. 자신이 가진 돈보다도 더 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 것만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것까지 넘보는 오늘날의 찌든 마음을 정화시켜 주고, 잠시 쉬어가게 하는 감동적인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행복한 한해를 꾸려나가기 계획한 모든 이들에게 권한다. 이은자 기자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조용헌 지음
생각의 나무 / 1만 5천원



“우주·인간을 통찰한 심오한 현실학문”

동양사상 연구 경향에 대한 조용헌 교수의 분류는 학문이란 외피를 벗겨낸 속알맹이 그대로이다. 강단(講壇)동양학과와 강호(江湖)동양학과로 나누는 그의 분류에 따르면 강단동양학이란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양학을 말하고, 강호동양학은 강호에서 좌중우돌하는 실천동양학을 말한다. 강단파와 강호파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강단이라고 하는 직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그래도 굶어죽지 않으면 강호파에 속하고 굶어죽으면 강단파라는 것이다.

강호동양학은 사주, 풍수, 한의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한의학은 시민권을 획득한 상태이고, 풍수도 영주권은 획득한 상태이지만 사주는 아직 불법체류자 신세라는 것이다.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는 바로 이 불법체류자 신세인 사주명리학에게 학문적 시민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다.

현재는 미신으로 치부되지만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 잡과(雜科) 중 음양과(陰陽科)에 명과학(命課學)이 있어서 정식 관료를 선발했던 국가공인 학문이었다. 합리성을 추구했던 조선에서 정식관료를 들 정도로 보호받았던 명리학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급차별에 저항하는 대항이데올로기의 구실도 했다. 왕후장상의 씨가 아니더라도 사주팔자만 잘 타고나면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는 평등의 논리가 그것이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역모사건에 명리학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학문적 접근만으로는 이 책이 한번 손에 잡으면 놀기 어려운 정도의 재미와 흡입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 비결은 명리학계 실존 고수들의 많은 일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 있다. 이는 조용헌 교수가 수많은 고승, 처사들을 찾아다니는 발품의 덕이기도 한데 이 중에는 근래 한국 명리학계의 ‘빅3’라는 자강(自強) 이성영(李錫映), 도계(陶溪) 박재완(朴在完), 제산(濟山) 박재현(朴宰顯)의 많은 일화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김재규가 1970년대 박재완을 찾아갔을 때 1979년에 ‘풍표낙엽(楓飄落葉) 차복전파(車覆全破)’의 운세라고 풀이했는데, 이를 ‘단풍잎이 떨어져 낙엽이 될 즈음에 차가 없어져서 전파 된다’

라고 해석한 김재규는 자동차를 아주 조심했지만 실제로는 차(車)는 차지질을, 전(全)은 전두환을 가리킨다는 것이니 이쯤 되면 가히 신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수기지사령관이었던 박정희 장군에게 제왕의 사주가 있다고 예견해 박 대통령의 큰 총애를 받았다가 유신(維新)을 유신(幽新), 즉 저승의 귀신이 된다고 예견하는 바람에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큰 고초를 겪었다는 일화도 있다.

그런데 조용헌 교수가 명리학에 학문적 시민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통력 때문이 아니다. 이런 신통력은 동양사회에서 수 천 년 전부터 형성되어 온 우주와 인간에 대한 연구와 통찰의 결과이기 때문에 학문적 시민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책이 <주역(周易)>인데 8·15해방을 예견하고 ‘경사스런 소식을 듣는다’는 뜻의 문경(聞慶)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14일부터 잔치를 베풀었다는 야산(也山) 이담(李澍)이나 충남대 총장을 지냈던 학산(鶴山) 이정호(李正浩)가 모두 <주역>에 몰두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박대통령 내외 객사·신군부 등장 예견 사주 명리학 학문적으로 접근

또 다른 고수인 <우주변화의 원리>의 저자 두암(斗庵) 한동석(韓東錫:1911-1968)의 예견은 한 개인의 비범성과 동양사상에 대한 조예가 결합된 결과이다.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모두 총맞아 객사할 것이라는 예언이나 그 후 신군부재 시대가 다시 오다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정한 사람(노태우)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금기(金氣·김영삼·김대중)를 지닌 사람이 한 10년 정도 정권을 잡는다는 예견은 명리학이 얼마나 심오한 세계인지를 잘 말해준다. 금기 다음에 목기(木氣)와 화기(火氣)를 지닌 사람이 연합해 남북통일이 된다는 그의 예언은 북핵 문제라는 난제를 앞둔 우리의 우울한 가슴에 한 가득 위안이 되기도 한다.

명리학은 강단에서 외면당한 현실학문이지만 이 책 301쪽의 “야산의 생애와 일화를 대충 더듬다보니 불현듯 산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있다. 산신령이 나를 부른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강단이라는 틀을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원초적 경지이기도 하다. 자유에의 이런 의지까지 이 책은 잘 표현하고 있다.

이덕일/역사평론가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는 한지문화권의 천재들이 고안한 인생 길흉화복의 해석방법인 사주명리학을 원광대 동양학 대학원 교수인 조용헌씨가 깊이있게 성찰한 책이다.